



## 新羅時代의 花郎 認識

The Image of Hwarangs during the Period of Silla

---

저자 (Authors)	김상현 Kim, Sang-Hyun
출처 (Source)	<a href="#">한국고대사연구 71</a> , 2013.9, 207-237 (31 pages) <a href="#">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71</a> , 2013.9, 207-237 (3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고대사학회</a>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5532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55325</a>
APA Style	김상현 (2013). 新羅時代의 花郎 認識. 한국고대사연구, 71, 207-23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9 10:4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新羅時代의 花郎 認識\*

김상현\*\*

- I. 머리말
- II. 사료의 문제
- III. 국가와 화랑의 관계
- IV. 국가의 화랑에 대한 대우와 그 배경
- V. 화랑도의 風流道 인식
- VI. 맺는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신라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화랑의 모습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로부터 출발했는데, 특히 국왕의 화랑 인식과 그 처우에 주목했다. 신라 사회에서 화랑은 매우 중시되었다. 화랑 관련 저술과 향가가 지어지고, 화랑의 비가 세워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풍류도는 나라를 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왕의 명에 의해 설립되었다.

\* 유고. 이 글은 한국고대사학회 제102회 정기발표회(2008. 5. 10)에서 구두발표 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前 동국대 사학과 명예교수

대표논저 : 2013 「眞覺國師 千熙의 佛敎史的 位相」 『文化史學』 39 ; 2013 「蛇福說話의 佛敎的 理解」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4 ; 2011 「一然의 一統三韓 인식」 『신라문화』 38.

나라 사람들은 모두 화랑을 존경하여 섬겼다고 한다. 국왕도 화랑을 받들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국왕과 국인이 모두 화랑을 받들었던 것은 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관념화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진흥왕은 왕자를 金輪과 銅輪으로 부르면서까지 전륵성왕을 동경했다. 상카라는 전륵성왕이 출현한다는 龍華世界는 일심으로 불교를 받들던 진흥왕의 이상세계일 수 있었다.

국왕은 화랑의 여행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화랑 관련 소식이나 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화랑과 관련된 상벌을 국왕이 직접 결정한 경우도 있다. 화랑의 행적을 기리는 비는 국왕의 승인을 받아서 건립할 수 있었거나 국가적 사업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화랑들 중에 從軍할 것을 청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아 공을 세운 경우가 있다. 이처럼 화랑의 여러 활동에 국왕이 직접 관계했다. 따라서 풍류도는 朝廷의 花主를 통해 국가가 직접 조직하고 운영했을 것이다.

花郎과 郎徒는 風流道를 수행하던 집단이었다. 화랑과 낭도들이 추구하던 道는 風流道였고, 풍류도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수행해야 할 道로 인식했다. 화랑들에게는 타인과 구별되는 동류의식도 있었다. 화랑의 행적을 새긴 비를 세우기도 했는데, 薛原郎碑와 四仙碑, 그리고 鸞郎碑가 그 경우다. 또한 화랑들의 전기도 편찬되었으니, 金大問의 『花郎世紀』가 그것이고, 풍류도의 연원을 밝힌 『仙史』라는 저술도 전하고 있었다. 진평왕 때의 승려 融天은 擘星歌에서 세 화랑이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혜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노래했다. 眞智王 때의 승려 眞慈는 한 길에 한 번 절하는 정성으로 未尸郎을 찾아 彌勒佛의 化身으로 받들었다. 경덕왕 때의 忠談은 기파랑을 상상한 잣나무에 비견하여 찬송했고, 이 향가는 궁궐의 경덕왕에게까지 알려져 있었다. 화랑 죽지랑은 낭도들의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기에 慕竹旨郎歌로 찬송되었다.

주제어 : 화랑, 낭도, 미륵신앙, 풍류도, 향가

## I. 머리말

신라 화랑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졌고, 그 성과 또한 적지 않아서 연구사적 정리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닐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당시대 사람들의 화랑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없다. 그리고 화랑의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 규명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화랑도의 역사상은 국가와 어떤 연관 하에 있었는지 밝히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sup>1)</sup>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라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화랑의 모습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국왕의 화랑 인식과 그 처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왕과 국민이 화랑을 받들었던 사실에 더욱 주목할 것이다. 국민은 물론 국왕까지도 화랑을 받들었던 그 배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미륵신앙과 관련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화랑이나 낭도 자신들은 스스로의 활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풍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화랑도에 관한 기초 자료는 그 대부분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편찬된 사서를 토대로 하여 신라 당대 사람들의 화랑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있다. 본고의 첫 장에서 사료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Ⅱ. 사료의 문제

신라 사회에서 花郎은 매우 중시되었다. 따라서 화랑의 전기로 생각되는 『花郎世記』와 風流道の 연원을 밝힌 『仙史』가 편찬되고, 讚耆婆郎歌처럼 화랑을 찬양한 향가가 지어지기도 했으며, 薛原郎碑를 비롯한 화랑의 비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화랑도에 관한 기초 자료는 그 대부분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를 감안하여 필자는 일찍이 고려시대의 화랑 인식을 검토한 바 있다.<sup>2)</sup>

1) 후보돈, 1997 「신라 화랑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계명사학』 8, p.126.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신라 당대 사람들의 화랑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화랑 기록들은 일차적으로 저자 김부식과 일연의 사관과 무관할 수 없다. 선택적인 서술이나 해석이야 역사가와 무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옛 기록에 대한 고의적인 變改나 刪削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국사기』에는 『화랑세기』가 두 번 인용되고<sup>3)</sup> 여러 명의 화랑과 낭도들이 등장한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직접 『화랑세기』를 보고 참고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화랑세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화랑의 전기도 전해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삼국사기』 김흠운 사론에서 “三代의 화랑이 무려 200여 명으로 그 芳名美事는 모두 전기와 같다.”고 한 기록에 주목할 때, 신라 삼대에 걸친 200여 명의 화랑 전기는 『화랑세기』와는 다른 전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5)</sup>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이 金長淸의 『金庾信行錄』에 기초하고 있음은 편찬자 스스로 밝힌 바 있음에 유의하면, “김유신의 낭도들이 용화향도라 불렀다는 김유신전의 기록은 김장청의 『김유신행록』이 비교적 손상 없이 전제되는 가운데 원형을 보존한 예”라고 보는 것은<sup>6)</sup> 당연하다. 진평왕 때의 낭도 劍君의 죽음에 대해, “검군은 죽어야 할 바가 아닌데 죽었으니 泰山을 기러기 털보다 가벼이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회의적 평가를 하고 있는 君子에 대해서는, 검군 당대의 사람으로 보

2) 김상현, 1989 「고려시대의 화랑 인식」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0, 신라문화선양회.

3) 열전 김흠운전의 史論의 일부 기록이 신라 본기 진흥왕 37년조의 화랑 기록과 거의 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도 화랑 기록의 전승을 짐작해 볼 수 있다.

4) 정구복, 1995 「삼국사기의 원전 자료」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23.

5) 이강래, 2007 「삼국사기 형성론」, 신서원, p.505.

6) 이강래, 앞의 책, p.521.

는 견해도<sup>7)</sup> 있고, 김부식 혹은 傳의 편자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sup>8)</sup>

그리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신라 시대의 기록을 원형대로 전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들 기록은 당대인의 화랑 인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삼국유사』 소재 화랑 관련 향가, 『삼국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8세기 초 김대문의 『화랑세기』, 최치원의 난랑비서, 혜공왕 4년(768)에 신라를 다녀간 당나라 顧愔의 『新羅國記』 등의 기록이 그것이다. 그리고 화랑과 관련 있는 향가인 擘星歌, 慕竹旨郎歌, 讚耆婆郎歌 등도 신라 당대의 산물이다.

비록 고려시대의 화랑에 대한 평가나 인식이 반영된 기록일지라도 신라 시대에 편찬된 화랑 관련 자료를 직접 접했던 경우라면, 그 기록은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과 같은 기록의 경우다. 물론 이들 자료에는 기록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해석도 없지 않지만, 전승되어 오던 신라 자료를 토대로 한 해석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 신라 시대의 花郎은 무려 2백여 명이나 되고, 그리고 그 명예로운 이름과 아름다운 사적은 그 傳記에 갖춰 있는 것과 같다. 金欽運과 같은 사람도 또한 花郎으로 능히 목숨을 나라 일에 바쳤으니 가히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sup>9)</sup>
2. 五百歲에 이름을 떨친 이로 原郎과 鸞郎 등의 謫仙들은 명승지를 두루 찾아 소요하며 노닐었고, 躡門入室한 자가 千萬을 헤아렸는데, 奔西, 台北은 꿈같은 길이었고, 叢石, 鳴沙는 바다 위의 봉래궁굴이었다. 쌀밥 먹고 사는 이들이 아닌 듯, 참으로 雲煙 중의 사람들이었다.<sup>10)</sup>

7) 김기홍, 1992 「삼국사기 검군전에 보이는 7세기 초의 시대상」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상』, p.327.

8) 이강래, 앞의 책, p.517.

9) 『삼국사기』 권47, 열전 제7 金欽運傳.

10) 郭東珣, 「八關會仙郎賀表」 『동문선』 권31.

3. 原郎으로부터 신라 말까지 200여 명이 배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四仙이 가장 어질었음은 또한 世紀 중의 설과도 같다.<sup>11)</sup>
4. 계림의 옛 풍속에, 남자 중 풍모가 아름다운 자를 뽑아서 珠翠로 장식하여 花郎이라고 이름 했는데, 國人이 모두 그들을 받들었다. 그 무리가 3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마치 原嘗春陵이 士를 양성한 것과도 같았다. 不群의 두각을 나타낸 사람[穎脫]은 조정에서 벼슬을 주었는데, 四仙의 문도가 가장 융성하여 비를 세우기도 했다.<sup>12)</sup>
5. 신라에는 옛적에 四仙이 있어서 각각 천여 명이 거느렸고 歌法이 성행했다.<sup>13)</sup>
6. 선풍은 멀리 周漢 때에도 들을 수 없었고, 또한 가까이는 唐宋 때에도 보지 못했는데, 이 나라에는 四郎이 진옥과도 같아서 만고에 전하는 명성 생활처럼 울렸다. 眞境 구하는데 수레를 함께 하니 푸른 양산 필적이고, 勝地 찾아 안장 나란히 붉은 고비 잡았네. 門下 천명 徒弟는 친절한 가르침 받았고(우리나라에는 四仙을 모실만한 사람으로 도제를 삼았는데, 사선에게 각기 천명의 도제가 있었다.), 佛家의 두 명 老師는 가까운 사이 되었네.(安詳 등 두 스님에 대해 공공상인의 시에 언급했다.)<sup>14)</sup>

1은 『삼국사기』의 기록이지만, 화랑의 전기를 참고하고 있기에 주목되는 데, 芳名美事가 전기에 갖춰 있다는 표현 등을 통해 화랑의 전기에 수록되어 있던 화랑들의 행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는 郭東珣의 「八關會仙郎賀表」인데, 특히 原郎과 鸞郎을 언급하고 있어서 참고 된다. 그가 원랑과 난랑에 관한 전기를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에 인용

11) 覺訓, 『해동고승전』 권1, 法雲傳.

12) 李仁老, 『破閑集』 卷下.

13) 崔滋, 『補閑集』 上卷.

14) 李奎報, 「次韻空空上人贈朴少年五十韻」 『동국이상국집』 권49.

된 최치원의 난랑비서에는 난랑의 행적에 관한 정보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곽동순의 이 글에 의하면, 원랑과 난랑 등은 명승지를 두루 노닐었다고 한다. 3은 覺訓, 4는 李仁老(1152-1220), 5는 崔滋(1188-1260), 그리고 6은 李奎報(1168-1241)가 각각 남긴 기록이다. 모두 四仙이 뛰어난 화랑이라고 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는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安詳 등 두 노승이 사선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이규보의 기록은 다른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夫禮郎을 사선 중의 한 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 Ⅲ. 국가와 화랑의 관계

화랑도의 조직이나 운영이 조정의 花主에 의해 관할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sup>15)</sup>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보다 半官半民의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화랑도의 조직이나 운영이 과연 반관반민적이라고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나라를 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인재의 양성과 천거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大要로까지 강조하면서 국왕의 명에 의해 설립되었던 풍류도를 국가가 총괄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도 관여할 정도로 出世間의 종교인 불교까지도 통제하던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大要로 인식했던 풍류도의 화랑과 낭도를 민간의 자율에 맡겼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국가의 허락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도 천여 명의 낭도들이 운집하는 자유로운 몇 개의 화랑 집단이 과연 고대 사회에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의문이 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

15) 이종욱, 1989 「신라 화랑도의 편성과 조직 변천」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10, p.251.

가가 화랑을 직접 총괄 장악하여 조직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사사로이 자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방임했다는 데 묘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sup>16)</sup>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화랑도의 운영이 민간의 자율에 맡겨졌다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가는 화랑도의 운영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어떻게 화랑이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화랑은 衆望에 의해 추대된다는 견해가 있다. 당시 사람들이 斯多습을 받들어 화랑으로 삼기를 청함에 부득이 화랑이 되었다는 기록만을 보면 이 견해는 타당한 듯하다. 그러나 진흥왕이 처음으로 薛原郎을 받들어 국선을 삼았다거나, 진지왕이 未尸郎을 敬愛하여 받들어 國仙을 삼았다거나, 효소왕이 天授 3년 임진(692) 9월 7일 夫禮郎을 받들어 國仙을 삼았다는 기록 등으로 보면, 오히려 국왕이 화랑을 임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時人이 만드는 화랑과 조정에서 만드는 화랑으로 구별하여야 한다는 견해나<sup>17)</sup> 여러 사람에 의해 추대된다는 설과 왕에 의하여 화랑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도 좋을까? 우선 時人이 만드는 화랑과 조정에서 만드는 화랑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欲興邦國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풍류도였고, 나라를 다스리는 大要로까지 중시하고 있던 화랑제를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랑의 임명은 朝廷花主를 거쳐서 국왕이 했을 것이라는 견해는<sup>18)</sup> 일단 경청할 필요가 있다. 조정화주의 경우, 비록 『삼국사기』 직관지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매우 주목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국왕이 화랑의 遊娛山水나 遊學 등에 관심을 보인 예도 있다. 진평왕 때의 居烈郎·實處郎·寶同郎 등 세 화

16) 김충렬, 1971 「화랑오계의 사상 배경고」 『아세아연구』 14-4, p.222.

17) 鮎貝房之進, 1932 「잡고」 4(화랑고), p.15 및 pp.25~28.

18) 이종욱, 앞의 논문, p.253.

랑의 무리가 금강산을 유람코자 하는데 혜성이 心大星을 범했다. 화랑의 무리들은 이것을 의아하게 여겨 여행을 그만 두려고 하였다. 이때에 融天師가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별의 궤변이 사라지고 일본군사도 제 나라로 돌아감에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sup>19)</sup> 혜성가의 창작 시기를 헬리혜성이 나타났던 607년(진평왕 29)으로 보는 견해를<sup>20)</sup> 따르면, 이 사건은 진평왕 29년에 있었던 일이다. 아무튼 혜성이 사라지자 대왕이 기뻐하여 화랑들을 풍악산으로 보내어 유람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한 황패강은 “화랑의 집단적 유오산수는 그들 자신의 의사에서보다는 왕명에 의하였다는 인상이 짙다.”<sup>21)</sup> 고 했다. 아무튼 이 경우는 화랑의 遊娛山水에까지 국왕이 관여하고 있었던 사례임에 분명하다. 憲安王(857-861)이 4년(860) 9월에 국선 膺廉을 궁중에 불러서 물었다. “그대가 국선이 되어 사방을 두루 유람하면서 특별히 본 것이 없는가?” 이에 응림은 그가 본 3인의 美行者에 대해서 말했고, 왕은 그의 현명함을 알고 왕후에게 “내가 겪어 본 사람이 많지만, 응림과 같은 사람은 없었소.”라고 말했고, 그를 사위로 삼았다.<sup>22)</sup> 이 경우는, 인물을 알아보기 어려움을 근심해서 類聚群遊하게 한 뒤에 그 행실을 보아 뽑아 쓰고자 해서 화랑제를 실시했다는 원래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국왕이 직접 응림의 생각을 떠 본 사례라고도 하겠다.

국왕은 화랑과 관련된 어떤 소식이나 소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眞智王(576-579)은 眞慈가 彌勒仙花를 찾아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서 왕성 안에서 찾아보라고 일렀고, 진자는 왕의 뜻을 받들어

19) 『삼국유사』 권5, 融天師彗星歌條.

20) 서영교, 2004 「용천사의 혜성가 창작 시기와 그 배경」 『민족문화』 27, 민족문화추진회, p.156.

21) 황패강, 1975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p.264.

22)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제11 헌안왕 4년조.

23) 『삼국유사』 권3,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

閭閻에서 未尸郎을 찾아냈다.<sup>24)</sup> 경덕왕(742-765)이 승려 忠談에게 말했다. “내가 일찍이 듣기는 耨婆郎을 찬미한 大師의 詞腦歌가 그 뜻이 매우 고상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충담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sup>24)</sup> 이처럼 진지왕은 미륵선화를 찾아 해매는 승려 진자를 불러서 도움을 주기도 했고, 경덕왕은 평소에 화랑 기파랑을 찬양한 향가 찬기파랑가의 의미가 고상하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화랑과 관련된 상벌을 국왕이 직접 결정한 사례도 있다. 화랑 斯多습이 가야 정벌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자 진흥왕은 사다함의 공로를 책정하여 가락국의 인구 300명과 전답을 주었다.<sup>25)</sup> 660년 황산벌 전투에서 화랑 官昌이 전사하자, 무열왕은 관창에게 급찬 벼슬을 내리고 예절을 갖추어 장사지내고, 그 집에 唐絹 30필, 20승포 30필, 곡식 100섬을 부의로 주었다.<sup>26)</sup> 효소왕은 692년에 잡혀갔던 국선 夫禮郎이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만파식적을 다시 찾게 되자 이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게 포상을 했는데, 부레랑을 봉하여 大角干을 삼고, 그의 아버지 大玄 아찬을 太大角干으로 삼고, 어머니 龍寶부인을 사랑부의 鏡井공주로 삼고, 安常法師를 大統으로 삼았다.<sup>27)</sup> 得鳥失은 효소왕 때의 화랑 竹旨郎의 낭도였다. 어느 날 모랑부의 益宣이 득오실을 富山城의 창지기로 임명했다. 죽지랑이 낭도 137명과 함께 부산성으로 가서 익선에게 득오실의 휴가를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使吏 侃珍이 성안으로 수송하던 租 30석을 익선에게 주고 득오실을 보내주도록 청했지만 그래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珍節의 말안장을 주자 허락했다. 朝廷花主가 이 말을 듣고 사자를 보내어 익선을 잡아 별주려고 했는데 익선이 도망하자 그 만아들을 대신 잡아 성안의 못에서 목욕을 시켰는데 얼어 죽었다. 효소왕이 이

24) 『삼국사기』 권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

25) 『삼국사기』 권44, 열전 제4 斯多습傳.

26) 『삼국사기』 권47, 열전 제7 官昌傳.

27) 『삼국유사』 권3, 백률사조.

말을 듣고 모랑리 사람으로 벼슬하는 자는 모두 쫓아내었다.<sup>28)</sup> 국선 邀元郎, 譽昕郎, 桂元, 叔宗郎 등은 은근히 임금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릴 뜻이 있어서 노래 3수를 지었다. 心彌 사지에게 針卷을 주어 大矩和尚이 계신 곳에 보내어 노래 세 곡을 짓게 했는데, 첫째는 玄琴抱曲, 두 번째는 大道曲, 세 번째는 問群曲이었다. 대궐에 들어가 경문왕(861-875)에게 아뢰니, 왕이 크게 기뻐하며 칭찬했다고 한다.<sup>29)</sup> 화랑 출신으로 왕위에 올랐던 경문왕은 특별히 風流를 떨쳤다고 한다. 따라서 화랑들에 대한 경문왕의 관심이나 배려는 더욱 각별했을 것이고, 요원랑 등이 노래를 지어 경문왕을 돕고자 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화랑 孝宗郎과 그의 낭도 천명이 知恩의 효성에 감동하여 가난한 지은을 도왔다는 미담을 전해들은 진성여왕(887-897)도 그 효녀에게 많은 곡식을 하사했고, 효종은 비록 나이 어리지만 老成함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형인 현강왕의 딸로 아내를 삼게 했다.<sup>30)</sup> 결국 진성여왕은 효종랑의 선행에 감동하여 결혼까지 주선했던 것이다.

薛原郎은 신라 최초의 화랑이다. 花郎國仙의 시초였던 설원랑의 碑를 溟州에 세웠다고 한다.<sup>31)</sup> 孝昭王(692-702) 때에 활동한 永郎 등 4명의 國仙, 즉 四仙의 碑가 동해안 삼일포와 한송정 등에 세워졌다. “오직 사선의 문도가 가장 번성했기에 비를 세웠다.”고 한 李仁老(1152-1220)의 기록<sup>32)</sup>과 叢石亭, 三日浦, 寒松亭의 세 곳에 사선과 관계있는 碑碣이 있었다는 李穀의 東遊記(1349)<sup>33)</sup>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崔致遠(857-?)이 鸞郎碑銘을 지었음은 『三國史記』에 인용된 鸞郎碑序로 알 수 있다. 설원랑비, 사선비, 난랑비

28) 『삼국유사』 권2, 孝昭王代 竹旨郎條.

29) 『삼국유사』 권2, 四十八景文大王條.

30) 『삼국사기』 권48, 열전 제8 孝女知恩傳 및 『삼국유사』 권5, 貧女養母條.

31) 『삼국유사』 권3, 彌勒仙花 彌尸郎 眞慈師條.

32) 『破閑集』 권하.

33) 『東文選』 권71.

등은 화랑의 비가 신라의 三代에 걸쳐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최초의 국선인 설원랑비를 국가의 승인 없이 세웠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최치원의 四山碑가 모두 왕명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듯 그의 난랑비도 왕명에 의해서 짓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화랑의 행적을 기리는 비의 경우, 국왕의 승인을 받아서 건립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국가적 사업으로 세워졌을 것이다.<sup>34)</sup>

화랑들 중에 從軍할 것을 청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아 공을 세운 경우가 있다. 화랑 斯多습은 여러 차례 종군하기를 청하여 진흥왕의 허락을 받고 貴幢裨將이 되어 가야를 공격하는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sup>35)</sup> 헌덕왕 14년(822) 2월 金憲昌이 난을 일으키자, 明基와 安樂 두 화랑은 각각 종군할 것을 청하여 무리들과 함께 참여했다.<sup>36)</sup> 이처럼 화랑이 종군을 청한 것은 극히 드문 예다. 화랑이 從軍을 청했던 일에 대한 이강래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

화랑도가 본질에 있어 일상적으로 군사적 기능이 기대되는 조직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본래 군사적 조직으로 출발한 조직이었다면, 그들의 전투 참여가 ‘請從軍’의 형식이 될 수도 없으려니와, 그 행위가 특기되고, 나아가 전투에서 전사할 경우 다른 전사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추념될 까닭도 없는 것이다.<sup>37)</sup>

화랑이 군사 조직이 아님을 강조한 이 견해는 동의할 만하다. 물론 660년

34) 三日浦에 있는 石壁 東北面에 전하던 ‘永郎徒南石行’이라는 丹書六字 및 川前里誓石에 새겨진 ‘戊年六月二日 永郎成業’이라는 명문의 경우는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할 수 있다.

35) 『삼국사기』 권44, 열전 제4 사다함전.

36)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제10 헌덕왕 14년조.

37) 이강래, 앞의 책, p.518.

에 무열왕이 백제를 공격할 때, 16세의 화랑 관창을 副將으로 삼았던 특이한 예도 있다. 아무튼 화랑이 종군을 원할 경우에도 국가에 청원했고, 이에 대한 허락 여부를 국왕이 결정하고 있었던 사례도 결국은 국가가 화랑도의 운영에 깊이 간여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신라에서는 화랑제를 통한 인재 발굴을 원했고, 결과적으로 金大問의 『花郎世記』에는 “어진 재상과 충성된 신하가 여기서 빠져 나오고 뛰어난 장사와 용감한 군사가 이로 인하여 생겨났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파한집』에 의하면, 不群의 두각을 나타낸 사람[穎脫]은 조정에서 벼슬을 주었는데, 四仙의 문도가 가장 융성하여 비를 세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유신이 어릴 때부터 함께 지냈던 裂起의 사람됨을 알아보았기에 어려운 임무를 맡길 수 있었다거나,<sup>38)</sup> 眞平王 때의 花郎 金欽春이 文武大王 때의 어진 宰臣이 되었다거나,<sup>39)</sup> 어느 大監이 말 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16세의 화랑 官昌을 태종대 왕에게 천거했다거나,<sup>40)</sup> 현안왕이 국선 응렴을 사위 감으로 선택했던 것 등은 화랑제를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천거한 구체적인 사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랑의 여러 활동에 국왕이 직접 관계했던 사례는 적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풍류도는 조정화주를 통해 국가가 직접 조직하고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풍류도의 기저에 있는 미륵신앙의 강한 영향으로 인해 승려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화랑제를 반관반민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38) 『삼국사기』 권42, 열전 제2 김유신전 중.

39) 『삼국사기』 권47, 열전 제7 金令胤傳.

40) 『삼국사기』 권47, 열전 제7 官昌傳.

#### IV. 국가의 화랑에 대한 대우와 그 배경

唐나라 顧愔의 『新羅國記』에 의하면, “貴人の 자제로 아름다운 사람을 가려 뽑아서 분을 바르고 곱게 단장하여 花郎이라 이름하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여 섬겼다.”고 한다. 『삼국사기』에는 ‘國人皆尊事’로 인용했지만, 『說郛』에 수록된 『大中遺事』에는 ‘國人皆爭事之’로 되어 있어서<sup>41)</sup> 국인이 다 투어 받들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신라국기』는 768년(혜공왕 4)에 당의 책봉사 歸崇敬을 수행해서 신라에 왔던 顧愔이 귀국하여 신라에서 견문한 바를 토대로 저술한 책이다.<sup>42)</sup> 고음이 신라에서 직접 견문한 바에 의하면, 8세기 후반 신라에서는 國人이 화랑을 다투어 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李仁老의 『파한집』에도 ‘國人皆奉之’라고 했다. 이 밖에도 화랑을 받들어 섬겼다는 사례는 많다. 다음의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1. 진흥왕 37년 봄에 비로소 源花를 받들었다. …… 그 후 美貌男子를 취하여 粧飾하여 花郎이라 이름하고 그를 받들었다.<sup>43)</sup>
2. 國史에는 眞智王 大建 8년 병신에 비로소 화랑을 받들었다고 했다.<sup>44)</sup>
3. 斯多습은 근본이 좋은 가문에 귀족의 자제로 풍모가 맑고 준수하며 志氣가 방정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받들어 화랑으로 삼기를 청하니 마지못해 화랑이 되었다.<sup>45)</sup>

41) 令狐澄, 『大中遺事』, 『說郛』 卷49.

42) 『삼국사기』에서는 『신라국기』의 저자를 令狐澄이라고 했지만, 이는 令狐澄의 『大中遺事』에 인용된 『신라국기』의 기록을 재인용하면서 이 책의 저자를 영고정으로 착각한 데서 생긴 문제다.

4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37년조. “三十七年春 始奉源花 …… 其後 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郎以奉之.”

44) 『삼국유사』 권3, 미시랑 진자사조.

4. 비로소 薛原郎을 받들어 國仙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花郎國仙의 시초다.<sup>46)</sup>
5. 眞慈가 未尸郎을 가마에 태우고 대궐에 들어가 왕을 보니, 진지왕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받들어 국선으로 삼았다.<sup>47)</sup>
6. 天授 3년 壬辰 9월 7일 孝昭王이 大玄 薩喰의 아들 夫禮郎을 받들어 國仙으로 삼았다.<sup>48)</sup>

이상의 자료로 알 수 있듯이, 신라의 국왕은 화랑을 받들었다는 것이다. 진흥왕 때로부터 효소왕을 거쳐 해공왕 때에 이르기까지 15·6세의 화랑을 國人이 모두 존경하여 섬겼던 것이다. 특히 국왕이 화랑을 받들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마땅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라시대의 奉자 사용 예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삼국유사』 一字索引을 이용하여 奉자의 용례를 대략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49)</sup>

1. 불교나 도교 등 종교와 관련하여 奉자가 사용된 예  
 一心奉佛, 受戒奉佛, 崇奉佛法, 新羅奉佛, 阿道來請奉佛之事, 奉浮屠之法, 以奉袈裟之靈蔭, 奉上如來, 國人爭奉五斗米教, 崇奉左道, 寶藏奉老, 奉安于十員殿, 然于時海東未有創寺奉法之事, 奉福邦家爾, 茲寺所以國家祈恩奉福之所, 爲先考聖德大王奉福所創也.

45) 『삼국사기』 권44, 열전 제4 사다함전. “斯多舍 本高門華胄 風標清秀 志氣方正 時人請奉爲花郎 不得已爲之.”

46) 『삼국유사』 권3,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 “始奉薛原郎爲國仙 此花郎國仙之始.”

47) 『삼국유사』 권3,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 “王敬愛之 奉爲國仙.”

48) 『삼국유사』 권3, 백을사조. “天授三年壬辰九月七日 孝昭王奉大玄薩喰之子夫禮郎爲國仙.”

49) 『삼국사기』의 奉자 사용례는 다음에 정리할 것이지만, 『삼국유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 國王 및 詔勅 등과 관련하여 奉자가 사용된 예

奉爲國主大王, 國人欲奉周元爲王, 奉勅如右, 奉教撰鐘銘, 奉朝旨創浮石寺, 宮吏奉勅將求之, 慧照國師奉詔西學, 僧應時奉勅歌呈之, 師奉教辭退, 終不肯奉詔, 卽奉遺詔卽位.

3. 당이나 송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경우, 모두 奉使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奉使於唐, 鄭恭奉使於唐, 有人奉使於唐, 奉使入宋.

이상의 용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라시대의 奉자 사용 예의 대부분은 종교 및 국왕과 관련된 경우다. 국왕이 받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佛法과 花郎(國仙) 뿐이다. 진평왕이 親奉跪受 했던 것도 天賜玉帶였다. 따라서 국왕과 국인이 모두 화랑을 받들었던 것은 거의 종교적 차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대문의 저서 『화랑세기』는 대개 8세기 초의 저술이다. 그리고 8세기 후반에 편찬된 『신라국기』에서도 화랑이라고 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서 사용한 화랑이라는 명칭은 신라시대에 줄곧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경우, 原花라는 명칭을 고쳐 화랑이라고 했다고 하고서도 정작 화랑이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처음으로 설원랑을 받들어 國仙으로 삼으니, 이것이 花郎國仙의 시초라고 하여 굳이 國仙이라거나 花郎國仙이라고 했다. 국선이라는 명칭은 일연에 의해 새롭게 생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풍류도의 연원을 밝힌 『仙史』가 신라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국선이라는 명칭도 신라시대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仙史』는 國仙史, 즉 國仙의 역사를 의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단 한 번도 국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15세에 화랑이 된 김유신의 낭도를 龍華香徒라고 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김유신이 18세에 國仙이 되었다고 했다. 용화향도라는 용어에 유의하면, 김유신을 국

선으로 호칭했을 가능성은 많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화랑은 설원랑, 김유신, 응림, 효종랑뿐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설원랑, 응림, 효종랑이 화랑이었던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다. 思內奇物樂이 原郎徒의 작이라고<sup>50)</sup> 했을 뿐, 최초의 국선 설원랑에 대한 언급도 없다. 『삼국유사』의 기록이 없었다면 이들이 화랑임을 알기조차 어렵다. 『삼국사기』에서는 왜 國仙, 仙郎 등의 호칭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는가? 국선의 불교적인 성격 때문일까?

화랑을 국선이라고도 불렀다. 김영태에 의하면, 이때의 선은 신선의 선이 아니라 미륵불을 의미한다고 한다. 도솔천의 미륵보살을 兜率大仙家로 표기했던 예가 있다.<sup>51)</sup> 구체적으로 仙이 미륵을 의미한다는 이 사례에 유의하면, 김영태의 견해는<sup>52)</sup> 주목할 만하다. 斷石山 神仙寺의 조상명문에 의하면, 신선사에 미륵불 1구를 조성해 모셨다고 하는데, 미륵불과 신선사는 서로 관련이 있다. 김유신이 국선이 되었을 때 그의 낭도를 龍華香徒로 불렀다는 것으로도 國仙이 곧 彌勒을 의미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龍華란 彌勒佛을, 그리고 香徒란 禮佛焚香之徒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랑 김유신이 17세 때에 中岳石窟에서 재계하고 기원하여 만났다는 노인 難勝도<sup>53)</sup> 도솔천에 있는 천왕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華嚴經』에 의하면, 十地 중 제5지는 難勝地이고 난승지의 보살이 難勝菩薩이며, 이 보살은 도솔천의 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sup>54)</sup> 김영태는 『화엄경』의 이 구절에 주목하여 천신으로

50) 『삼국사기』 권32, 잡지1 약.

51) 『삼국유사』 권5, 月明師兜率歌條.

52) 김영태의 「미륵선화고」(1966 『불교학보』 3·4합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신라 진흥대왕의 信佛과 그 사상 배경」, (1967 『불교학보』 5), 「승려낭도고」(1970 『불교학보』 7) 등 참조.

53) 『삼국사기』 권41, 열전 제1 김유신전 상.

54) 『華嚴經』(佛馱跋陀羅역) 대정장 9, p.542c, p.557c.

서 내려와 김유신에게 비법을 전해 준 난승노인과 도솔천왕으로서의 난승보살과는 잘 부합한다고 보았다.<sup>55)</sup> 황패강은 ‘金公庾信乃三十三天之一子 今降爲大臣’이라는 기록에 주목하고, 이를 三十三天의 하나인 兜率天에서 하생한 彌勒菩薩視 되었던 저간의 사정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sup>56)</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랑 김유신에게는 미륵신앙의 영향이 많았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풍모가 아름다운 남자를 택해서 보석으로 장식하고 화랑이라고 불렀다.<sup>57)</sup> 결국 화랑이란 풍모가 아름다운 남자를 뽑아 더욱 아름답게 장식했기에 그 모습을 두고 ‘꽃처럼 아름다운 소년’이란 의미로 불렀던, 형식을 중시한 호칭이다. 이에 비해 國仙이란 나라의 仙, 즉 나라의 미륵불이란 의미였으니, 이것은 내용을 중시한 호칭이었던 셈이다. 내용과 형식을 합쳐 ‘花郎國仙’이라고 부른 예도 있는데, 이는 ‘국선화랑’으로 불러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화랑과 국선은 같은 것의 이칭이었다. ‘국선화랑’을 줄이면 ‘仙花’ 혹은 ‘仙郎’이 되는 것이다. 미륵불의 化身으로 생각했던 未尸郎을 彌勒仙花라고 했다는데, 문제의 열쇠는 있다고 하겠다. 화랑의 장식에 대해서는 여자였던 원화를 이어서 생긴 것이 화랑이기에 여자처럼 아름답게 치장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화랑은 男巫였기에 화장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김영태에 의하면, 이 또한 미륵신앙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즉 『彌勒來時經』에 의하면, 미륵이 下生하면 그 국토의 모든 사람의 얼굴이 “桃花色 같이 아름답다”는 것<sup>58)</sup>인데, 화랑의 모습은 미륵보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한 데 있다<sup>59)</sup>는 것이다. 결국 화랑은 낭도들의 리더이면서 동시에 미륵이었던 셈이

55) 김영태, 1989 「김유신의 통일지와 미륵신앙」 『한국불교학』 14, 한국불교학회, pp.17~24 참조.

56) 황패강, 1975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p.260.

57) 李仁老, 『破閑集』 卷下. “擇男子美風姿者 以珠翠飾之 名曰花郎.”

58) 『佛說彌勒來時經』, 대정장 14, p.434c.

다. 이 때문에 국왕을 비롯한 國人들이 모두 받들어 공경했던 것이고 安常의 경우처럼 高僧까지도 낭도들의 上首가 되어 화랑을 모실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나라를 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풍류도를 설립했던 신라의 지배층이 화랑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당시 이상세계의 조속한 실현을 염원하고 있던 신라의 지배층이 진정 화랑도야말로 그들의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만은 확실하다는 견해는<sup>59)</sup> 주목할 만하다. 풍류도를 설립하던 진흥왕은 어떤 이상세계를 꿈꾸었을까? 一心奉佛하던 진흥왕이 왕자를 金輪과 銅輪으로 부르면서까지 전륜성왕의 꿈을 되새겼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미륵이 하생하는 龍華世界에는 상카라는 전륜성왕이 출현한다고 한다. 따라서 미륵 하생의 용화세계가 도래하면 진흥왕이 희망하던 전륜성왕은 이루어지는 것. 이 때문에 진흥왕의 전륜성왕에 대한 동경과 미륵신앙과 國仙制의 설립 등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김영태의 견해는 여전히 경청할 만하다.<sup>61)</sup>

나라를 흥하게 하기를 염원했던 진흥왕이 생각하던 이상사회의 모델은 무엇이었을까? 一心奉佛하며 전륜성왕의 꿈을 꾸고 있던 그가 불교의 이상사회를 그 모델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사회 佛國淨土는 彌陀淨土와 彌勒淨土가 있었지만, 전륜성왕의 정치이념과 관련지어 이 지상에 건설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상사회라면 그것은 당연히 미륵정토를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황패강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59) 김영태, 1967 「신라 진흥대왕의 信佛과 그 사상 배경」 『불교학보』 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p.70.

60) 이기동, 1984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p.106.

61) 물론 국선을 여러 화랑들을 통솔하는 화랑보다 한 단계 높은 조직으로 본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진흥왕 때 우여곡절 끝에 창설된 화랑제는 미륵신앙을 배경으로 하여, 미륵의 화현으로서 화랑을 관념했고, 이를 통해 미륵정도를 신라 사회에 구현하는 것이 그 이상이었던 것 같다.<sup>62)</sup>

사실 미륵신앙 관련 경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미륵정도는 간단명료하면서도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륵이 하생하여 성불할 때의 용화세계는 풍족하고 안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 세존은 아난에게 다음과 말씀하셨다.

먼 장래 이 나라 경계에 시두성이 있는데, 그 크기는 동서가 12由旬이고 남북이 7유순이며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번성하여 도시가 서로 이어져 있으리라. …… 그 때에 엽부제의 국토는 평탄하고 쪽 고르며, 거울처럼 깨끗하고, 곡식이 풍족하고, 백성이 번성하며, 온갖 보배가 흔하고, 모든 부락이 잇달아서 닭의 소리가 들리니라. 그 때에는 좋지 못한 과일 나무는 시들고, 냄새나고 더러운 물건도 다 소멸되며, 달고 향기로운 과일나무가 땅에 자라리라. 그 때에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사람의 몸에는 백팔 종류의 질병이 없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없으며, 인심이 골라서 다 한 뜻과 같으며, 서로 보면 기뻐하고 좋은 말을 주고받으며, 그 말이 통일되어 차별이 없는 것이, 마치 올단월 세계와 같으니라. 그 때에는 이 세상의 인민이 다 고루 잘 살아서 차별이 없으며, 대소변을 하려하면 땅이 저절로 열리고, 마친 뒤에는 다시 합치느니라. 그 땅에는 벼가 저절로 자라나되 껍질이 없고, 매우 향기롭고 달며, 먹으면 모든 병고가 없느니라. 그리고 자거, 마노, 진주, 호박, 금, 은 등 값진 보배들이 땅에 흩어져 있어도 욕심내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손에 든 보물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옛 사람들은 이 보물 때문에 서로 해치고 옥에 갇히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갈돌과 같이 여기어 누구도 탐내

62) 황패강, 1975 『미륵신앙과 화랑』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p.258.

는 이가 없네”라고 하리라. 그리고 상카라는 법왕이 세상을 바른 법으로 다스려 교화함으로써 일곱 가지 보배를 성취하리니, 이른바, 輪寶, 象寶, 馬寶, 珠寶, 玉女寶, 典兵寶, 守藏寶니라. 또 남섬부주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되 칼이나 몽둥이 등을 쓰지 않아도 자연히 다 굴복하리라.<sup>63)</sup>

미륵불이 하생할 때 도래할 풍족하고 안락한 세상에 대한 묘사는 이처럼 구체적이다. 이러한 이상세계의 정치지도자는 무력을 쓰지 않고도 여러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고 했으니, 매우 매력적이고 희망적인 이상세계라고 하겠다.

경덕왕 19년(760) 4월 초 하루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왕은 日官의 말에 따라 인연 있는 승려를 맞아 散花功德을 행하고자 朝元殿에 齋壇을 마련하고 기다리다가, 月明師를 맞이하여 壇을 열고 帑를 올려 줄 것을 명했다. 월명사가 아뢰었다. “신승은 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어서 다만 향가만 알 뿐 聲梵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왕은 말했다. “이미 緣僧으로 점지되었으니, 향가를 쓰더라도 괜찮다.” 이에 월명이 도솔가를 지어 부르자 괴변은 즉시 사라졌다. 도솔가는 다음과 같다.

오늘 이에 散花 불러 뿌리온 꽃이여 너는/ 곧은 마음의 命 하이시니/  
彌勒座主 모시어라.

미륵불에의 散花는 『미륵하생경』에 그 예가 보인다. 그리고 이 노래는 도솔 내원에 있는 미륵보살의, 이 세상에의 하생을 원구하는 작자 자신의 미륵 신앙이 동기화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황폐강은 이 노래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63) 『불설미륵하생경』(이종익역, 1996 『미륵경전』, 민족사, pp.30~31).

도술가는 작자와 미륵보살, 혹은 현세와 천상의 괴리를 중간자적인 ‘꽃’을 매개로 하여 일체화하려는 작자 자신의 염원을 나타냈다. ‘꽃’을 통해 지고한 서정적 자아[直心]와 도술천의 미륵과의 사이에 영적 교감을 이루어, 이로써 미륵 하생의 이상국토 - 일체의 재앙으로부터 해방된 불국토의 도래를 희망적으로 노래하고 있다.<sup>64)</sup>

이처럼 국선지도에 속해 있던 승려 월명이 지었던 도술가는 미륵 하생신앙을 기조로 하여 이상세계 불국토의 도래를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패강은 “미륵좌주를 모시어라.”고 한 구에서 화랑의 사상적 배경이 된 미륵 현세의 염원이 엿보인다고 했다.<sup>65)</sup> 진지왕 때의 승려 진자가 미시랑을 미륵선화로 받들었던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미륵신앙의 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었는데, 그의 낭도를 龍華香徒라고 했다. 진지왕 때의 興輪寺 승려 眞慈는 미륵불상 앞에서 “大聖이 화랑으로 화신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제가 언제나 그 얼굴을 보며 가까이서 시중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발원한 후 未尸郎을 만나 國仙으로 삼았고, 이를 彌勒仙花라고 했다. 未尸郎과 낭도 眞慈 이외에도, 好世郎의 낭도 惠宿, 夫禮郎과 그 낭도 安詳, 膺廉과 그 낭도 範教, 낭도 月明 등의 예에서 보듯, 승려 신분으로 낭도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三花郎의 금강산 여행을 위해서 擘星歌를 지었던 融天과 讚耆婆郎歌의 작자 忠談도 화랑과 무관하지 않았다. 불교와 풍류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하게 해 주는 자료다. 풍류도가 미륵하생사상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면, 미륵의 상징인 국선을 낭도의 上首였던 승려낭도가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자신은 國仙之徒

64) 황패강, 2001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p. 439.

65) 황패강, 1975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p. 266.

에 속해 있기에 범패에는 익숙하지 못해도 향가는 지을 수 있다던 월명의 말은 주목된다. 물론 하생신앙을 응용하여 풍류도를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풍류도와 불교는 지향하는 바와 수행 방법 등이 엄연히 달랐다.

『삼국사기』에는 崔致遠(857-?)의 鸞郎碑序가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어서 주목되어 왔다.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風流라고 한다.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는 『仙史』에 자세히 갖추어져 있거니와, 실로 이는 三敎를 포함하고 群生을 接하여 教化한다. 이를테면, 들어와서는 집안에서 효를 행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함은 魯나라 司寇의 가르침이고, 無爲에 처하여 일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함은 周 나라 柱史의 뜻이며, 모든 악은 짓지 않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함은 竺乾 太子의 가르침이다.<sup>66)</sup>

이 글에는 풍류도에 대한 최치원의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가 인식한 풍류도는 接化群生하는 종교적 특징과 그리고 三敎融會의 성격을 가진 현묘한 道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최치원의 안목에 의한 것일 뿐, 설립 당시부터 풍류도의 성격이 실제로 包含三敎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V. 화랑도의 風流道 인식

花郎과 郎徒는 風流道(風月道)를 수행하던 집단이었다. 原花를 폐지한지

66)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37년조).

몇 년 만에 진흥왕은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반드시 風月道를 먼저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리더를 花郎制로 바꾸기 전인 原花制 시기에도 風月道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花郎徒는 風流黃卷에 이름을 올려놓고,<sup>67)</sup> 風月之庭에서 修行하여,<sup>68)</sup> 세상에 風流를 빛나게 하거나,<sup>69)</sup> 경문왕의 경우처럼 風流를 떨쳤다.<sup>70)</sup> 최치원이 난랑비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풍류도는 우리나라의 玄妙한 道였던 것이다. 풍류도가 體라면, 花郎徒는 用의 관계에 있었다. 신라시대에 이 사실을 혼돈한 경우는 없었다. 설립 당시에도, 그리고 리더를 원화로부터 화랑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최치원이 鸞郎碑銘을 짓던 신라 하대에도 화랑들이 추구하던 것은 풍류도였다. 오히려 20세기에 이르러 花郎道라고 하여 체와 용을 바꾸어 이해하거나, 뿌리를 잊은 채 가지에만 주목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風流가 新羅 때로부터 일어났다거나<sup>71)</sup> 風流가 역대에 전해왔다고<sup>72)</sup> 했음에 주목하면, 풍류·풍류정신이야말로 화랑이 추구하고 구현하고자 했던 道였다. 花郎과 郎徒들이 추구하던 道는 風流道 혹은 風月道였다. 風流道의 道는 佛道나 儒道라고 할 때의 道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된 듯하다.

1. 왕은 나라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風月道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다.<sup>73)</sup>
2. 崔致遠의 鸞郎碑序에서 말했다.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風流라고 한

67) 『三國遺事』 권2, 孝昭王代 竹旨郎條.

68) 『삼국사기』 권48, 열전 제8 김군전.

69) 『삼국유사』 권3,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

70) 최치원, 승복사비.

71) 崔瀼는 「故密直宰相閔公行狀(『拙藁千百』 권2)에서 風流起自新羅時라고 함.

72) 郭東珣, 「八關會仙郎賀表」에서 風流橫被於歷代라고 했다(『동문선』 권31).

73) 『삼국유사』 권3,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

다.<sup>74)</sup>

3. 劔君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近郎의 낭도에 이름을 두고 風月之庭에서 수행하기에 진실로 의로운 일이 아니면 비록 천금의 이익이 있더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sup>75)</sup>
4. 孝昭王 때 竹曼郎의 낭도 중에 得鳥級干이 있어서 風流黃卷에 이름을 올려놓고 날마다 출석했다.<sup>76)</sup>
5. 왕은 未尸郎을 공경하고 사랑하여 받들어 國仙으로 삼았다. 그는 낭도들과 화목하게 지냈으며 禮義와 風教가 보통과는 달랐다. 風流가 세상에 빛남이 거의 7년이나 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간 곳을 알 수 없었다.<sup>77)</sup>

풍류도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수행해야 할 道로 인식했다. ‘修行於風月之庭’이라고 했던 진평왕 때의 낭도 검군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랑 김유신이 17세 때 三國을 병합하려는 마음으로 中嶽의 石窟에서 하늘에 맹세하며 빌었던 예와 그가 18세에 ‘修劍得術爲國仙’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화랑의 수행 모습을 볼 수 있다. 相磨道義, 相悅歌樂, 遊娛山水는 화랑도의 풍류도 수행 방법이었다.

화랑들에게는 타인과 구별되는 동류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낭도였던 승려 惠宿이 國仙 瞿岳에게 그대는 吾徒가 아니라고 했던 일이 있다. 곧 혜숙이 사냥을 즐기던 국선 구참을 향해서 “처음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공은 仁人인지라 능히 자기를 미루어 동물에까지도 미치리라 하여 따라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 오직 살육에 몰두하여 남을 해쳐서 자기를 살찌울 뿐이니, 이것이 어찌 仁人君子가 할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무리

7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眞興王 37年條.

75) 『삼국사기』 권48, 열전 제8 劔君傳.

76) 『삼국유사』 권2, 孝昭王代 竹旨郎條.

77) 『삼국유사』 권3,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條.

는 아닙니다.”라고 했다.<sup>78)</sup> 仁人君子가 할 일이 못 되는 사냥을 즐기는 당신은 우리와 이상을 같이 하는 사람, 즉 품계가 아니라 혜숙의 말을 통해, 仁人君子를 그들의 이상으로 하던 화랑도 사이에는 자신들만의 동류의식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화랑 출신 응림이 왕위에 오른 뒤에 국선 邀元郎과 譽昕郎과 桂元과 叔宗郎 등이 왕을 도울 생각으로 노래 세 수를 지어 바침에 경문왕도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sup>79)</sup> 이 경우에도 화랑들의 동류의식이 보인다.

眞平王 50년(628)의 일이다. 近郎의 郎徒 劍君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근랑의 낭도에 이름을 두고 풍류도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진실로 의리에 어긋나면 비록 천금의 이익이 있더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그들의 이상과 자존심을 지켰다.<sup>80)</sup> 金歆運이 화랑 文努의 문하에 있을 때, 徒衆들이 아무는 전사하여 지금까지 이름을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 흠운은 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격려하여 그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는 기색이 있었다. 同門 승려 轉密이 말했다. “이 사람이 만약 싸움터에 나가면 필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흠운은 655년의 조천성 전투에서 전사했다.<sup>81)</sup> 이처럼 김군과 흠운은 大丈夫이기를 자부했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화랑도의 엘리트의식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덕왕 때의 승려낭도 月明은 말했다. “臣僧은 다만 국선의 무리에 속하여 鄉歌는 알지만 聲梵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에 의하면, 國仙之徒는 鄉歌를 알았다는 것인데, 이는 화랑도가 相悅歌樂하고 歌法盛行했다는 기록과도 맥을 같이한다.

화랑의 행적을 돌에 새겨 전하기도 했는데, 薛原郎碑와 四仙碑, 그리고 鸞郎碑가 그 경우다. 또한 화랑들의 芳名美事를 기록한 傳記類도 편찬되었으니, 金大問의 『花郎世紀』가 그것이고, 풍류도의 연원을 밝힌 『仙史』라는 저

78) 『삼국유사』 권4, 二惠同塵條.

79) 『삼국유사』 권2, 四十八 景文大王條.

80) 『삼국사기』 권48, 열전 제8 김군전.

81) 『삼국사기』 권47, 열전 제7 金歆運傳.

술도 하대에는 전하고 있었다. 진평왕 때의 승려 融天은 혜성가에서 三花郎이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쓸어 주기 위해서 혜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노래했다. 眞智王 때의 승려 眞慈는 一步一拜의 정성으로 未尸郎을 찾아 彌勒佛의 化身으로 받들었다. 경덕왕 때의 충담은 기과랑을 서리도 범하지 못하는 심성한 잣나무에 비견하여 찬송했고, 이 향가의 뜻이 매우 고상하다는 소문은 궁궐의 경덕왕에게까지 퍼졌었다. 화랑 죽지랑은 낭도들의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기에 慕竹旨郎歌로 찬송되었다.

## Ⅵ. 맺는말

이 글은 신라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화랑의 모습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했는데, 특히 국왕의 화랑 인식과 그 처우에 주목했다. 신라 사회에서 화랑은 매우 중시되었다. 화랑 관련 저술과 향가가 지어지고, 화랑의 비가 세워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풍류도는 나라를 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왕의 명에 의해 설립되었다.

나라 사람들은 모두 화랑을 존경하여 섬겼다고 한다. 국왕도 화랑을 받들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국왕과 국민이 모두 화랑을 받들었던 것은 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관념화 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진흥왕은 왕자를 金輪과 銅輪으로 부르면서까지 전륜성왕을 동경했다. 상카라는 전륜성왕이 출현한다는 彌勒下生の 龍華世界는 一心奉佛하던 진흥왕의 이상세계일 수 있었다.

국왕은 화랑의 여행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화랑 관련 소식이나 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화랑과 관련된 상벌을 국왕이 직접 결정한 경우도 있다. 화랑의 행적을 기리는 비는 국왕의 승인을 받아서 건립할 수 있었거나 국가적 사업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화랑들 중에 從軍할 것을 청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아 공을 세운 경우가 있다. 이처럼 화랑의 여러 활동에 국왕이 직접 관계했던 사례는 적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풍류도는 朝廷花主를 통해 국가가 직접 조직하고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花郎과 郎徒는 風流道를 수행하던 집단이었다. 花郎과 郎徒들이 추구하던 道는 風流道였고, 풍류도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수행해야 할 道로 인식했다. 화랑들에게는 타인과 구별되는 동류의식도 있었다. 화랑의 행적을 돌에 새겨 전하기도 했는데, 薛原郎碑와 四仙碑, 그리고 鸞郎碑가 그 경우다. 또한 화랑들의 芳名美事를 기록한 傳記類도 편찬되었으니, 金大問의 『花郎世記』가 그것이고, 풍류도의 연원을 밝힌 『仙史』라는 저술도 하대에는 전하고 있었다. 진평왕 때의 승려 融天은 혜성가에서 三花郎이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쓸어 주기 위해서 혜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노래했다. 眞智王 때의 승려 眞慈는 一步一拜의 정성으로 未尸郎을 찾아 彌勒佛의 化身으로 받들었다. 경덕왕 때의 충담은 기파랑을 서리도 범하지 못하는 싱싱한 잣나무에 비견하여 찬송했고, 이 향가의 뜻이 매우 고상하다는 소문은 궁궐의 경덕왕에게까지 퍼졌었다. 화랑 죽지랑은 낭도들의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기에 慕竹旨郎歌로 찬송되었다.

투고일 : 2012. 7. 31	심사개시일 : 2012. 8. 21	심사완료일 : 2012. 8. 31
-------------------	---------------------	---------------------

## 참고문헌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파한집』, 『동국이상국집』, 『보한집』, 『동문선』, 『大中遺事』

鮎貝房之進, 1932 『잡고』 4(화랑고)

이종익역, 1996 『미륵경전』, 민족사

이기동, 1984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황패강, 1975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황패강, 2001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정구복, 1995 「삼국사기의 원전 자료」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강래, 2007 『삼국사기 형성론』, 신서원

김영태, 1967 「신라 진흥대왕의 信佛과 그 사상 배경」 『불교학보』 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김충렬, 1971 「화랑오계의 사상 배경고」 『아세아연구』 14-4

이종욱, 1989 「신라 화랑도의 편성과 조직 변천」 『신라문화계학술논문집』 10

주보돈, 1997 「신라 화랑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계명사학』 8

김상현, 1989 「고려시대의 화랑 인식」 『신라문화계학술발표회논문집』 10, 신라문화선양회

김기홍, 1992 「삼국사기 검군전에 보이는 7세기 초의 시대상」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서영교, 2004 「용천사의 혜성가 창작 시기와 그 배경」 『민족문화』 27, 민족문화추진회

## Abstract

### The Image of Hwarangs during the Period of Silla

Kim, Sang-Hyun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depict the image of hwarangs held by the people from the period of Silla. It, in particular, focuses on the kings' perceptions of them and the treatments hwarangs received. In Sillan society, hwarangs were considered to occupy an important place. This is why many works and hyanggas about hwarangs were written, headstones erected. P'ungnyudo was created under the order of the king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 nation prosper.

Everyone in Silla is said to have admired and respected hwarangs. There are several records indicating that the kings accepted hwarangs. The reason that both the kings and people accepted hwarangs was because of the idea that hwarangs were the incarnation of Mirūk. King Jinheung admired Chöllyun sōngwang so much that he called his princes Gümnyun and Dongyun. Sangkara is the Yongwha world where Chöllyun sōngwang appears and this might have been the ideal world of King Jinheung, who was a sincere Buddhist.

The kings seem to have taken an interest in the travels of hwarangs and the news and rumors about them. There are occasions on which the kings themselves determine the rewards and punishments concerning hwarangs. The headstones dedicated to hwarangs were probably erected either under the order of the kings or as part of a national project. Some hwarangs volunteered for military service and, with the approval of the king,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These examples suggest that the kings were directly involved in several activities of hwarangs. Therefore the government is likely to have organized and operated P'ungnyudo through the Hwajuū itself.

Hwarangs and nagdos were a group of people who practiced P'ungnyudo. The ideals hwarangs and nagdos were pursuing were P'ungnyudo, which was thought to be something they had to train for rather than a sort of pastime. They also shared a sense of identity that distinguished them from the rest. There are headstones that show

the activities of Hwarangs such as Sölwonangbi, sasŏnbi, and nanrangbi. There is also a biography about them written by Kim Daemun entitled Hwarang segi. And a book named ‘Sunsa’ traces P’ungnyudo to its origin. A monk named ‘Yung Cheon,’ who lived during the reign of King Jinpyeong, sang a song named ‘Hyesŏngga’ in which he said that comets appeared in order to clean up the road to Mt. Geumgang for three Hwarangs. A monk named Jinja from the reign of King Jinji reached Misinang after having made a ‘one step, one bow’ pilgrimage walk and accepted it as the personification of Mirŏkbul. Ch’ungdam, during the period of King Gyeongdeok, praised Kiparang comparing him to a robust nut pine and this hyangga was even known to King Gyeongdeok. Chukchirang was an object of longing among nangdos and thus was worshiped in the Mochukchirangga.

Key words : Hwarang, Nangdo, Mirŏksinang, P’ungnyudo, hyangga